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1. 25.(목) 11:00 < 1.26.(금) 조간 > 배포 2024. 1. 25.(목)

글로벌 불확실성에 대비하여, 「통상전략 분과」 가동!

- 산·학·관, 경제안보와 수출을 중심으로 통상전략 재정립 필요성 제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1월 25일(목), 서울 강남 트레이드 센터에서 양병내 통상차관보 주재로 업계·학계·정부가 참여하는 「통상전략 협의회」 분과 회의를 개최하였다. 금번 회의는 글로벌 통상환경을 조망하고 우리의 통상전략 방향 재정립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 주요 업종별 협회와 무역협회·산업연구원·한국경제연구원 등 유관기관들이 참여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24년 글로벌 통상환경 및 대응방안, ▲경제안보 관점에서 우리의 통상전략 방향 등에 대한 발제 및 토론이 이루어졌다.

먼저 "24년 글로벌 통상환경 및 대응방안"을 발제한 무역협회 조성대 실장은 "금년은 총 76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선거의 해'로 선거결과에 따라 세계 질서에 큰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러-우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최근 후티 반군 공습으로 인한 물류난 등 지정학적 리스크 상시화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안보 관점에서 우리의 통상전략'을 발제한 김흥규 교수는 "미(美)·유럽연합(EU)·중국 등 주요국은 첨단산업 기술패권 및 글로벌 공급망 주도권 장악을 위해 통상-산업을 연계한 강력한 산업·공급망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우리도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통상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양병내 통상차관보는 "미래 먹거리이자 민생과 직결되는 반도체·배터리 등 첨단산업과 국익을 지키기 위해 통상교섭본부가 '경제안보'의 최전선에서 공급망 안정, 첨단기술 보호, 다층적 경제협력 등 전방위적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작년 12월 통상전략 협의체 발족 후 통상전략, 디지털·기후·첨단기술 등 통상규범 및 수출확대를 위한 통상 네트워크 강화 등에 대한 산학관 협의를 연이어 진행하고 있으며,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통상전략」을 수립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통상정책국 통상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김영만 (044-203-5620)
		책임자	사무관	신상훈 (044-203-5622)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참고1 「통상 전략 협의회」 통상전략 분과회의 개요

□ 행사개요

○ (**개최배경**) 「**통상전략 협의회**」 발족('23.12월) 이후 1차 분과회의 개최를 통해 통상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등 추진**

○ (**일시/장소**) 1.25일(목) 14:00~15:30 / 트레이드 센터(무역협회 51층)

○ (**참석자**) 통상차관보, 반도체·배터리·자동차 등 주요 업종별 협회, 학계*, 무역협회, 산업硏, 한국경제硏 등 전문기관

* 한국외대 강유덕 교수, 서강대 김도훈 교수, 아주대 김흥규 교수 등

□ 세부 프로그램

○ 통상 차관보 주재, 인사말 후 전문가 발제 및 토론 등 진행

시간	프로그램	비고
14:00~14:03('3)	개회사	통상차관보
14:03~14:18('15)	'24년 글로벌 통상환경 및 대응방안	무역협회 조성대 실장
14:18~14:33('15)	경제안보 관점에서 우리의 통상전략	아주대 김흥규 교수
14:33~15:30('57)	토론	-

참고2 「통상 전략 협의회」 통상전략 분과 참석자

기관명	참석자
산업통상자원부	양병내 통상차관보
	윤창현 통상정책국장
	김종철 통상협력국장
	김영만 통상정책총괄과장
	안홍상 미주통상과장
전문가	한국외대 강유덕 교수
	서강대 김도훈 교수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 김흥규 교수
산업연구원	김계환 연구위원
무역협회	조성대 실장
한국경제연구원	이태규 박사
반도체 협회	전배근 실장
배터리 협회	이태훈 팀장
자동차 산업 협회	서정란 상무